



연극 '할머니의 이야기 치마'

연극 '할머니의 이야기 치마'
이달 20일 우당도서관 강당

제주시 우당도서관은 연말을 맞아 이달 20일 오후 2시 도서관 품오름 강당에서 어린이 창작 가족극 '할머니의 이야기 치마'를 선보인다. 제주 창작 공연팀 '두근두근 시어터'가 선보이는 '할머니의 이야기 치마'는 제주신화 설대할망을 소재로 한 연극으로, 이야기 할머니와 누더기 강아지가 들려주는 신비롭고 재미있는 제주 이야기를 담아 낸 무대다. 참여 신청은 이달 3일부터 제주시 우당도서관 누리집에서 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100명을 접수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우당도서관(전화 064-728-834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12월 크리스마스 공간으로"
한라도서관 테마전시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이 12월 한 달간 크리스마스 공간으로 꾸며진다. 한라도서관은 이달 4일부터 31일까지 도서관 1층 로비에서 테마전시 '크리스마스가 머무는 도서관'을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도민들이 책과 더불어 크리스마스 감성을 즐기고 따뜻한 겨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전시 공간에는 크리스마스 관련 어린이책과 영어원서를 비치하고,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품들을 설치해 연말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이달 17일 오후 3시에는 정운수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의 '크리스마스에 듣는 클래식' 강연이 열린다. 참여 신청은 제주시 우당도서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한 해 결실 모아” 세밑에도 문학 열정

제주문학단체들 잇단 작품집
서른여덟 한라산문학동인시집
제주펜·동백·함덕·표선 문학

세밑에도 문학 열정이 이어진다. 제주 문학단체들이 한 해의 결실을 모아 잇따라 작품집을 내놓고 있어서다.

1987년 창립해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문인동인 한라산문학동인회(회장 김향신)가 서른여덟 번째 동인시집 '글썩에서 숨길 왔다'를 펴냈다. 이번 작품집에는 열일곱 명의 시인들의 작품이 담겼다. 김향신 회장은 여는글에서 “태초의 활화산으로 거듭나기 위해 한 해의 결실을 모아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또 양전형·안상근·오승국·이명혜·강애심·김산자 시인의 초대시 6편을 비롯해 '제주어'를 주제로 한 테마시 12편도 실었다.

국제펜(PEN)한국본부 제주지역위원회(회장 윤봉택)는 '제주펜 문학' 제22집을 펴냈다. 고(故) 김창하 시인을 추모하는 특집과 오영



호 시조시인의 '나의 문학, 나의 삶'을 기획으로 다룬다. '피의 범람', '스스로에게 묻다' 등 아홉 명의 해외 문인의 작품을 실었고 처음 선보이는 '동인초대석'에서는 셋별문학회 송기남 시인을 다룬다. 제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여성 문학인들이 모여 2021년 결성한 동백문학회(회장 김순신)는 다섯 번째 '동백문학'을 펴냈다. '제주의 바람'을 주제로 14명의 작가가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을 특집으로 실었다. 또 제주문학관 명예과장인 김순이 시인과의 대담과 제주 출신 해녀 김옥련·부춘화·부

덕량의 향일활동을 소개하며 시대를 앞서간 제주여성상을 탐구했다. 지역 문학인들의 작품집도 잇따랐다. 함덕문학회(회장 한문웅)는 '함덕문학' 제9호를 내놓았다. '새로움을 위한 섬표'를 주제로 회원들이 담아낸 시, 시조, 소설, 동화, 수필들을 실었다. 또 제2회 함덕문학 백일장 24편의 수상작과 심사평도 담았다. 표선문학회도 '표선문학' 제2집을 펴냈다. '경계의 문학'을 주제로 한 사진 에세이와 함께 특집 '다시 봄을 꽃, 4·3'을 실었다.

박소정기자 cosorona@ihalla.com

제주의 사계절... 색으로 빛낸 작가 11인

그리메창작미술연구회전

제주 자연의 사계절을 화폭에 담았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갤러리 뽕디와에서 열리고 있는 그리메창작미술연구회의 열세 번째 정기전 '보물섬 제주, 색으로 빛나다'이다.

그리메창작미술연구회는 2008년 미술 동호인회 '산마루'에서 출발

해 17년간 창작 활동을 이어온 지역 미술단체다. 이번 전시는 그리메 소속 11명의 작가가 제주 자연을 주제로 그려낸 회화 작품 20점을 선보인다. 작가마다 각자의 시선으로 꽃자왈 숲길, 동백꽃 등 제주의 자연 경관을 캔버스에 다채롭게 담아냈다. 전시는 이달 14일까지 이어지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박소정기자



조수연의 '동백의 꿈'

지역·학교 함께한 문화예술 '손끝 더하기'

2025년 예술꽃산양 지연연계 프로그램 결과보고전 '손끝 더하기'가 이달 14일까지 예술꽃산양 전시실에서 열린다.

올해로 3년째인 프로젝트의 두 번째 결과보고전인 이번 전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저청초등학교 전교생 125명을 대상으로 진행

된 예술 교육의 성과를 공유한다. 제주지역 예술가 3명이 직조, 입사일링, 도예 등 다양한 시각예술 활동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학생들은 섬유·자연재료, 폐품 및 해양 쓰레기, 흙 등을 활용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김채현기자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한판 <477> 구성:(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으 멍 이 골맨: “누님, 나 덕구영 굴메놀이ㅎ멍 놀안마쑴.”
죤 네 골맨: “경ㅎ여시냐. 어뎡 주미져냐? 으멧야, 경안해도 하르바지가이, '미래 소녀 예나' 이왓은 문 묵친 게 아니고, ㅎ폼 쉬엇당 또시 ㅎ켄ㅎ여라게.”
하르바지 골맨: “이제부떠 제주시 오라동 양전형시인이 켜 제주시집 '개무로사 못살리카'엔 혼 디서 '나 굴메를 사랑한다'에 대한 시 이왓을 ㅎ여보켜.”

- 나 굴메를 사랑한다 -

훈때는 초라니추록 늑드기도 ㅎ여라마는
꺾작 상 와랑와랑 젓어도 뎡겨라마는
나 집이 돌아왕 머리 녹질 뎡겨장
앞상 돌을 듯 ㅎ웨 기십도 좋아라마는
소들아가는 임제가 팔팔ㅎ지 못헛 미안하다.

문직지 못해도 나 굴맨 나 목십이쑴.
오랜만이 탐동꺾갓 주악주악 멧기는디
나 몸 풀란 나산 늘작늘작 걷는 것광
축웃이 우리 아방 웨방나사단 모냥다리여
굵은 우더나라노난 굴메도 어상바상ㅎ구나

아무런갑세 나 굴메야, 사랑ㅎ는 나 굴메야,
춧마가라, 이녁 톤침 녹지사 안 홀 테쑴
나 안직 홀 일 남아시난 날 톡기 십영
나도 멧심ㅎ커메 닝끼령 누리져지 말곡
어디 강 심드령 편편 조름 질기게 앓지 말앙
나영 혼디 대꺾대꺾 일어사곡 ㅎ게
ㅎ솔흔 거 가수이 네기지 말앙 빙완도 잘 멧기게
게민, 우리 돌이 손도장 톤돈이 누르뜨게

<계속>

<자료:양전형 제주어시집 '개무로사 못살리카' 도서출판 다솜>

제주어 풀이

- *굴메(굴미, 그르메, 그리메, 그림제) : <이름> 그림자
- *초라니(초란이, 초라대기) : <이름> 말과 일을 잘난 척하며 철없이 저질러 어지럽히는 사람
- *늑드다 : <움직> 사리를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담비다.



오 창 악 (서귀포농협 이사)



서귀포농업협동조합 임직원 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 상
2025년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최우수상
(2025년 감귤박람회 감귤품평회 대상)

2025년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최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